

롤랑 바르트의 수사학에 관한 연구

김휘택*

【 차 례 】

- I. 바르트의 수사학에 관한 연구: 일반기호학
- II. 의미작용과 수사학
- III. 비선형적인 대상과 수사학
 - 1. 대상에 대한 의미작용의 기제
 - 2. 이미지의 수사학
- I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표는 바르트의 이론에서 수사학의 위상과 기호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우리는 바르트의 저술, 『모드의 체계』, 『옛날의 수사학: 비망록』, 『이미지의 수사학』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르트의 ‘새로운 수사학’이 일반기호학의 기제, 즉 모든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부여와 해석의 기제를 바탕으로 이론적 영역을 구축했다는 점이었다. 수사학의 체계 안에서 함축의미가 일어난다는 바르트의 언급은 그가 내세운 수사학이 의미작용, 즉 해석과 읽기의 문제를 학문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플로슈의 이론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사학이 말과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같은 비선형적 대상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플로슈가 바르트와 같이 강조하는 것은 기호학의 역할이 의미작용의 기제를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 기제를 통해 언어행위의 분석을 포함하여 조형적 대상을 분석하고자 했다. 플로슈의 이러한 연구 방향은 바르트의 수사학이 대상을 다루는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바르트가 제시한 전체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한 용어들도 그의 독특한 사고를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진

* 제1저자,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프랑스어문학전공, 조교수, kimhuiteak@cau.ac.kr

수사학이 그러하고, 텍스트, 신화, 함축의미, 외시의미 등도 정의를 하는 데 있어 여러 문헌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바르트의 기호학 연구 여정이 그만큼 다양한 학문과 관계를 맺고, 폭넓은 범위의 대상에 관심이 보이기 때문이다.

열쇠어 : 롤랑 바르트, 장 마리 플로슈, 수사학, 「옛날의 수사학: 비망록」, 의미작용, 함축의미

I. 바르트의 수사학에 관한 연구: 일반기호학

바르트Roland Barthes는 추상적 실체로서의 텍스트 연구에서 거론되는 중요한 학자이며, 관련된 특정 분야로 그의 연구와 저술을 한정할 수 없다. 1998년 발간된 『현대기호학의 발전』에서는 바르트를 설명하는 표제로 ‘텍스트 기호학’을 택했다. 이 표제는 텍스트의 실질과 관계없이 기호학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자 했던 바르트의 작업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표제는 바르트의 학문적 여정 전체를 최소한의 용어로 요약하기 위한 일종의 ‘선택’으로 보인다. 바르트는 텍스트학textologie 혹은 기호학sémiologie이라는 정형화된 범주 개념에서 벗어나, 다시 세계와 텍스트를 접하는 자신, 그리고 그로부터 느끼는 원초적인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출한다.

그[바르트]가 객관적인 과학으로서의 기호학에 몰두하고 있던 시기에도 그의 작업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기호학을 과학으로 정립시키려는 계획보다는 일종의 계통학을 실험해보는 즐거움이었으며, 이러한 분류 활동 속에는 사드Sade, 푸리에Fourier 같은 위대한 분류학자들의 창조적 도취 같은 것이 있었다고 바르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은 이 시기에도 문학과과학의 의지보다는 체계 자체가 주는, 체계의 놀이가 주는 쾌락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며, 따라서 “마침내 무관심한 학문에 무관심해져서 쾌락에 의해 시니피앙 속으로, 텍스트 속으로 들어간” 바르트의 행보는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가 느꼈던 쾌락과 같은 감정들은 어떤 학문 영역으로도 규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으로도 정의하거나 분류할 수 없는 이런 감정들을 기호학과 텍스트와 관련된 학문들은 각자의 논리로 재구성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사학’을 바탕으로 그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특히, 『모드의 체계 *Le système de la Mode*』와 「옛날의 수사학: 비망록 *L’ancienne rhétorique: aide-mémoire*」, 「이미지의 수사학 *Rhétorique de l’image*」 등과 같은 저술들은 ‘수사학’이라는 용어가 그의 연구에서 독특한 개념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물론, 그의 수사학을 정확한 개념적 경계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도들이 계속 다른 관점과 마주해야 한다고 보았을 때, 다양한 관점들을 계속해서 하나의 논리로 묶어내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결론일 뿐이라는 생각에 도달한다. 어쩌면 바르트와 관련된 모든 주제들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관점들을 나열해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시도 중 하나일 뿐이다.

수사학 연구는 랑그의 차원을 넘어서 ‘탈경계언어학적 *translinguistique*’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언어행위 전략, 즉 용변에 사용되는 특수한 기법들에 대한 학문으로 여겨졌던 수사학은 이제 일상의 모든 언어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²⁾ 최근 소셜 미디어들이 발전하면서 언어행위 전략은 이미지, 소리 등과 복잡하게 얽히고 있으며, 따라서 수사학은 그 영역확장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³⁾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 바

1) 김치수 외,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174쪽.

2) 토이(Richard Toy)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수사학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언어를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맥락 안에 놓아야 한다. 따라서 불변의 수사학 법칙 같은 것이 있다는 주장은 다소 회의적이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같은 삼절문(三節文) 기법은 천년 넘도록 매우 효과적인 조합으로 부동의 명성을 누렸지만, 이것이 두뇌의 타고난 속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그저 오래된 문화적 습관인지는 분명치 않다.” 리처드 토이, 『수사학』, 노승영 역, 고유서가, 2015, 13쪽.

3) 김현은 기고문에서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모든 인간의 표현 수단이 결국 ‘쓰기’ 환원되며, 수사학은 존재 가치를 잃지 않고, 전달 수단, 즉 전달의 전략만이 다양화하는

르트의 결론은 그의 글쓰기 기저에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학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을 뒷받침한다. 다음 바르트의 언급을 보자.

마지막으로, 대문자 수사학Rhétorique에 의해서 형성됐고 인문주의에 따라서 승화된 우리의 문학 전체가 하나의 정치·사법적인 실천에서 유래했다는 이 짙막한 확인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수사학을 <문체>로 한정하는 오해를 품지만 앎는다면). 금전과 재산과 계급 사이의 가장 격렬한 갈등들이 국가의 법에 따라 다루어지고, 억제되고, 다스려지고, 유지되는 곳, 제도에 의해서 장식적인 표현이 통제되고, 시니피앙의 모든 사용이 체계화되는 곳에서 우리의 문학이 태어난 것이다. 대문자 수사학을 단순히 그리고 전적으로 역사적 대상이란 지위로 떨어뜨리는 것, 텍스트와 글쓰기의 이름으로 새로운 언어행위의 실천을 주창하는 것, 그리고 혁신 학문으로부터 결코 떨어져 나오지 않는 것이 여기서 하나의 동일한 작업이 되는 이 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⁴⁾

위와 같이, 「옛날의 수사학: 비망록」의 끝부분에서 바르트의 수사학에 대한 시각은 분명히 드러난다. 바르트에게 수사학은 “텍스트와 글쓰기의 이름으로 새로운 언어행위의 실천을 주창하는 것”이다. 즉 수사학은 바

것이라고 강조한다. “수사학은 말의 기술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순간, 수사학은 작동한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내 생각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제대로 소통할 것인가? 이것이 수사학의 근본 질문이다. 이것이 수사학 연구자만의 물음일 수는 없다. 타인과 더불어 살며 말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딪히는 고민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서는 더더욱 그렇다. 페르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정보의 디지털화는 기술적인 혁명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고 쓰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쓰는 것은 기술 자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인류학적인 활동이다. 나는 입을 열어 직접 말을 하지만, 마이크를 이용하기도 하고 영상 녹화를 하기도 한다. 그것 모두가 다 ‘말하기’다. 나는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철필로 밀랍 서판 위에 쓰기도 하며, 자판을 두들겨 스크린 위에 쓰기도 한다. 그것 모두가 다 ‘쓰기’다. 분명 코드의 변화는 있다. SNS에서 말하고 쓰는 행위는 간략함을 추구한다. 그러나 소통의 근본적인 과정은 그대로다. 이런 이유에서 수사학도 그대로다.” 김현, 「지식의 최전선」 설득의 학문, 수사학의 세계, 조선일보, 2015년 8월 12일자 인터넷판(<https://url.kr/m4tquc>)

4) R. Barthes. “L’ancienne rhétorique: aide-mémoire”, *Communications*, n°16, 1970, p.223.

르트에게 지켜야 할 전통적 규칙의 총체로서 말과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전제된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관련한 주체의 모든 행위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인식적인 기제를 가리킨다.

수사학은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하게 개념화되어 있다. 바르트는 이 개념을 ‘문학 언어의 고대 실행 방식’(*ancienne pratique du langage littéraire*)과 ‘글쓰기의 새로운 기호학’(*nouvelle sémiotique de l’écriture*)⁵⁾으로 나누어 대립적으로 구분한다. 특히 두 번째 수사학 개념이 새롭다는 것, 그것이 기호학적이라는 언급은 수사학과 기호학의 관계 설정에서 나아가 바르트 이론들에 관한 재고찰의 장을 열어 놓는다. ‘글쓰기’로 명명된 의미 부여와 해석의 과정이 이제 수사학의 기제가 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수사학은 모든 언어행위에 포함된 보편적인 수단이다. 이제 언어행위는 의미작용의 교차로 다시 읽힌다. 수사학이 기호학적 활동이 되면서, 언어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표현, 즉 기표들은 의미작용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언어행위는 개별기호학으로서 일부분만을 차지하며, 수사학은 일반기호학과 같은 개념을 갖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일반기호학은 어떤 최종 의미에 대한 추구가 아니다. 이 항상 새로운 학문은 생성된 의미 자체보다는, 그 의미를 가능하게 했던, 의미작용과 의미생성의 기제를 파악하려는 인식론적 분야이다.

우리가 텍스트의 복수태(그것이 한정되어 있더라도)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면, 고전적인 수사학과 교과서적 설명이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이 텍스트를 커다란 덩어리들로 구조화하는 것을 단념해야 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의 구축은 없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몇 번이고 의미한다. 그렇지만, 어떤 궁극적인 커다란 전체나 최후의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⁶⁾

5) *Ibid.*, p.172.

6) R. Barthes, *S/Z*, Paris, Editions du Seuil, 1970, p.18.

‘고전적 수사학’이 고정된 규칙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잘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바르트는 그 수사학이 텍스트의 복수태 즉, 텍스트가 끊임없이 몇 번이고 의미하는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목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르트 수사학의 외연을 정확히 규정하려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앞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르트의 기호학과 수사학이 교차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바르트의 텍스트와 관련한 논의들을 더 깊게 이해할 방안과 이로부터 시작할 다른 연구의 주제들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의미작용과 수사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겠다.

II. 의미작용과 수사학

의미작용signification은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하는 작업을 포함한다.⁷⁾ 의미작용을 통해, 우리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과정과 기표와 기의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합과정으로서 의미작용은 기호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체의 인식적 작업이다. 바르트의 의미작용에서 기표에 결합하는 기의의 자리는 근본적으로 비어있다. 기의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일종의 은유로서 기표의 맞은편에 자리 잡는다. 김경용은 우리의 사고 자체가 은유적 활동이라고 규정한다. “인간의 관념 세계는 수많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의 대부분이 은유로 되

7) 김경용은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그의 저서 용어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다. “의미작용은 다음의 두 가지 기호학적 조작을 뜻한다. 기표에 기의를 연결하여 기호를 만듦으로써 기호로 하여금 기의의 가치를 표현하게 하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기호에 담아놓은 기의의 가치를 추출해 내는 작용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의 과정이다. 가령 보낸 뜻이 분명치 않은 선물(기호)을 받았을 때 그것이 진정 <감사>의 뜻인지 <뇌물>의 뜻인지 아니면 <관례>가 그런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 의미작용이다. 그런 선물을 한 사람도 어떤 뜻 (기의)을 선물에 심어놓았음이 틀림없다. 즉 의미작용을 선물에 가한 것이다.”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1994, 322쪽.

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사고 과정 역시 대체로 은유적이다. 은유가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의 바탕이자 대상이 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현실을 축조하기 때문이다.”⁸⁾

의미작용은 사회적, 규약적, 개인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개인적 의미작용에 주목해보자. 이 의미작용은 기표와 기의의 결속을 혈겁게 만든다. 랑그 차원에서 기표와 기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단단히 결합한다. 그래서, 같은 랑그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은 이 기표와 기의가 만드는 언어기호를 기준으로 삼고 의사소통한다. 바르트는 ‘문채(文彩)’에 고유어와 비유어의 두 가지 언어 행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에 따르면, 고유어에 대해 비유어는 일종의 일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채라는 관점에서, 비유어를 일탈인 것은 고유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르트는 고유어의 기표와 기의의 결합을 문제 삼는다. 그는 고유한 의미가 최초의 의미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채의 영역에서 말들의 의미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다른 의미에 그 자리를 내어준다.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고유한 의미가 오래된 의미일 수는 없지만(고어는 낡설다), 문채가 형성되기 바로 직전의 의미이다. 한 번 더 말하면, 고유한 의미, 진정한 의미는 선행하는 의미(아버지 의미)이다. 고전적 수사학에서는 선행하는 의미가 정착된 의미였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역설이 가능하다. 어떻게 고유한 의미가 본연의 의미이고, 비유적 의미가 최초의 의미일 수 있는가?⁹⁾

윗글에서 보듯이, 바르트는 어떠한 의미도 기표에 완벽히 고착된 의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기호학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수사학은 이러한 의미작용의 기제를 통해 그 영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바르트는 모든 함축의미connotation의 부여와 발견이 ‘수사학 체계

8) 같은 책, 66쪽.

9) R. Barthes. *op.cit.*, 1970, p.221.

systeme rhetorique'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 수사학적 체계는 바르트가 『모드의 체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글로 쓰인 의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세계뿐만 아니라, 모드로 대변되는 특정한 분야에도 관여한다. 의복과 세계를 관계 맺으려고 할 때, 랑그 차원의 기호처럼 너무 당연시되는 관계들이 있다. 이 상관관계를 등가관계équivalence로 명명하며, 이에 대해 바르트가 든 예는 구두와 보행, 모자와 이마, 액세서리와 봄, 날염 직물과 경마장, 오후와 주름진 옷이다. 각 조합은 용도, 인과 관계, 타동성, 그리고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양자를 연결하는 맥락으로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짝들의 결합은 절대적이지 않고, 다양한 결합의 가능성 중 한 경우일 뿐이다.¹⁰⁾ 이 조합을 이루는 어휘들의 관계가 동일성이 아니라 등가관계로 명명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그런데, 이 의복과 세계의 관계가 글로 쓰이면서, 모드로 의미작용이 될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만약, “경마장에서는 날염 직물이 지배적이다.(Les imprimés triomphent aux Courses.)”¹¹⁾라는 말이 강의 중에 사용되었다면, 바르트가 말하는 수사학적 체계 즉, 최종적인 의미의 자리에는 지식, 관습, 문화의 전달이라는 함축의미가 채워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 모드라는 함축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문장은 더는 잠재적이지 않으며 패션 잡지에서 쓰는 말이 된다. 이 문장은 수사학적 체계의 기표가 되며, 일상의 세계가 아니라 특정 분야로 한정된 기호화된 세계에 대한 의미 부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바르트가 제시한 실제 코드, 용어 체계, 수사학 체계 층위의 도식¹²⁾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사학적 체계는 실질의 세계와 의복과는 동떨어져, 철저히 주체의 패션 잡지라는 발화체의 집합에 대한 의미작용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10) R. Barthes, *Le système de la Mode*, Paris, Editions du Seuil, 1967, p.34.

11) *Ibid.*, p.45.

12) *Ibid.*, p.40.

13) 김경용의 다음 테크놀로지에 대한 언급은 발화체로서의 패션 잡지에 대한 의미작용이 수사학적인 것으로서 단순히 우리가 사는 실질 세계의 현상이 아니라, 패션 세계의 진화·발전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테크놀로지에 힘입은 사회는 이미

이때의 의미작용은 결국 해석, 즉 읽기의 문제로 귀결된다. “가시적인 것[의복]과 비가시적인 것[세계, 모드]의 등가를 가정함으로써 의복과 세계 또는 의복과 모드의 관계는 단지 단 하나의 용도, 즉 어떤 읽기의 용도로만 쓰인다.”¹⁴⁾ 이 읽기는 지향된 인식 작용이며, 이는 의미 부여의 가장 핵심적인 기제이다. 의복과 세계의 관계를 모드로 의미 부여하는 것, 그리고 패션 잡지의 말들을 다시 세계의 표상과 연결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이 단지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을 대상에 부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체 나름의 의미를 세계와 대상에 투영하는 한 차원 높은 기호화 과정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바르트의 글을 보자.

실제 코드는 학습과 이에 따른 어떤 지속 기간에 근거를 둔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전제로 삼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제한된 의사소통이 문제가 된다(예를 들어 도로 코드, 항공모함에서 사용되는 착륙 신호 코드). 용어 체계는 즉각적이지만(이 의사소통이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다. 즉, 단어는 학습 기간을 절약해 준다) 개념적인 의사소통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순수한 의사소통이다. 수사학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은 어떤 점에서는 더욱 폭이 넓다. 왜냐하면 이 체계는 메시지를 사회적, 정서적, 이데올로기적인 세계로 열어 놓기 때문이다.¹⁵⁾

여기서 수사학 체계가 사회의 일상적 의사소통에 중심이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윗글에서 보는 것처럼, 랑그와 같이 규약이나 교육을 통해 학습한 것만으로 의사소통하지는 않는다. 주체는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미부여, 기표와 기의의 은유적 결합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표명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간

우리와 함께 있으나, 그러한 신사회는 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수사학적 설득을 쉬지 않고 퍼냄으로써 현 사회를 과거 사회로 계속 밀어낸다. 보전과 탐색의 연합은 유희의 장을 마련한다.” 김경웅, 『미디어 신화』, 경문사, 1993, 68쪽.

14) R. Barthes, *op.cit.*, 1967, p.36.

15) *Ibid.*, pp.43~44.

다. 이 인간에게 부여된 수사학적 능력으로 인해, “인간은 사물들을 기호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기호들을 분절된 언어행위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글자 그대로의 뜻을 가진 메시지를 함축의미를 지닌 메시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¹⁶⁾

Ⅲ. 비선형적인 대상과 수사학

1. 대상에 대한 의미작용의 기제

바르트의 의미작용은 언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언어학강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언어학은 기호학의 한 하위 분야일 뿐이다. 기호학과 언어학의 영역 문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언어학의 대상 역시 이미 문장의 이상의 단위를 다루고 있다. 기호학이 ‘의미의 과학’으로서 세미오시스 기제 규명을 목표로 하면서, 언어기호 연구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는 다음 바르트의 언급으로 이 상황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첫 2년간 우리의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기호학의 기초적인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들의 실질(이미지, 그 선율, 움직임)에 따라 분류된 기호적 체계 목록에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열중하였습니다. 우리는 올해 파롤의 기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지나왔습니다. 그것은 언어학적 실질의 코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학에서 최상위 대상이 일반적으로 문장이기 때문에, 파롤의 언어학이 그 기호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이차적 코드는, 함축의미 *connotations*의 단계, 특히 문학적 함축의미에 부합합니다. 이 코드의 최고 단위는 담화 *le discours*와 작품 *l'oeuvre*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탈경계언어학적 *translinguistique* 체계를 **수사학**으로 명명합니다.¹⁷⁾

16) *Ibid.*, p.44.

17) R. Barthes, “Recherches sur la rhétorique”, in *Roland Barthes: Œuvres complètes Tome II*, Paris, Editions du Seuil, 2002, p.747.

우선, 윗글은 기호학이 언어기호, 즉 랑그의 차원에서 벗어나 어떤 대상이든 함축의미 차원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탈경계언어학’¹⁸⁾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수 있고, 이때의 의미론의 관건은 문장의미가 아니라 주체가 대상에 투영하는 함축의미와 그 기제에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 단위에서 벗어난 기호학에서, 현상은 기표인 문장과 기의인 명제의 결합으로 꼭 환원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도식은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기표가 되고, 여기에 기의가 결합하는 두 층위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이미지와 같은 비선형적 대상에 어떻게 수사학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수사학이 함축의미임을 전제할 때, 수사학은 상대방에게 화자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말의 규칙 자체가 아니다. 플로슈 Jean-Marie Floch는 ‘수사학적 기호학 *sémiologie rhétorique*’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수사학적 기호학이 ‘잘 말하는 기술’ *art de bien parler*인 고전 수사학과 유사하게 문채 이론에 근거해서 광고를 기획했기 때문에, ‘규범적인 이론으로 인식되는 불운’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플로슈는 이와 같은 지적을 통해서 수사학으로서의 기호학이 연구 방향이 변동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가 말하는 수사학적 기호학의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취약성은 “오늘날 자기 관심의 중심을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행위 연구로부터 ‘의미작용’의 체계로서의 언어행위로 옮긴 사람들에게” 더 분명히 파악될 수 있다.¹⁹⁾ 여기서의 기호 체계에서 의미작용 체계로의 이행은 앞서 언급한 방브니스

18) 탈경계언어학이라는 용어를 바르트가 사용하는 뜻으로 논문 「랑그의 기호학」에서 방브니스트가 결론에서 기호학이 지향해야 할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방브니스트는 의미작용의 차원을 강조하면서 “텍스트, 작품의 탈경계 언어적(*translinguistique*) 분석에서는 발화행위의 의미론을 바탕으로 구성될 메타의미론(*métasémantique*)”을 제2세대의 기호학으로 천명하였다. 이 기호학은 ‘일반기호학’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언어기호학은 개별 분과의 하나가 되었다. 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Paris, Editions Gallimard, 1966, p.66.

19) J.-M. Floch, *Petites Mythologies de l’œil et de l’esprit: pour une sémiotique plastique*, Paris, Editions Hadès, 1985, p.142.

트의 「랑그의 기호학」이 제기한 제 2세대 기호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서양의 고전 수사학은 한정된 문화 속에서 ‘말’이라는 원래 규칙을 정할 수 없는 사실에, 규칙을 정하는 학문이었다. 이 학문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과는 달리, 매번 새로운 메시지의 불가역성irreverssibilité에도 불구하고 규칙이라고 할만한 것들을 고정하려 했던 노력의 결정체였다.²⁰⁾ 수사학은 말과 글이 참조해야 할 기준을 정하는 분야가 되었다. 수사학이 정한 여러 규칙이 아직 유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보편화²¹⁾로, 언어 행위가 가진 개념의 폭도 넓어졌다. 따라서 수사학이 언어에만 한정해서 가졌던 메타언어적 권위가 전면 부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미와 관련된 기제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사실은 가장 실용성의 측면에서 있는 광고 분야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플로슈는 이 실용적인 관점으로부터 기호학을 수사학으로 재조명한다. 이 과정에서 바르트가 생각하는 수사학의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

플로슈는 전면적인 함축의미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바르트가 아니라 언어기호의 단계, 신화의 단계, 함축의미의 단계를 상정한 바르트를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언어기호조차도 의미작용의 한 양상으로 보는 바르트를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자. 그리고 플로슈는 의미작용의 기호학보다는 파리학파의 서사 기호학의 체계에 정통했다는 것도 이 지점에서 분명히 해두자. 따라

20) R. Barthes, *op.cit.*, 2002, p.747.

21)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가 이러한 미래를 예견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생활 속에서의 기호의 삶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기호학을 정의하면서, 언어기호를 연구하는 기호학이 개별기호학이 된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 정의를 통해, 분야에 상관없이 조형적 대상을 다루는 학자들이 탈경계언어학, 즉 제 2세대의 기호학을 전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포스터, 신문 광고, 라디오를 통한 메시지, 텔레비전의 짧은 상업광고나 영화 등 이러한 대상들은 모두 이들을 통해 언어가 그밖의 다른 기호체계들에 대해 맺는 관계, 하나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분할할 때의 원칙들, 혹은 더 나아가서 의사전달이나 의미작용의 구별에 관한 문제들을 규명해볼 수 있는 분석 대상들이었다.” J.-M. Floch, *op.cit.*, 1985, pp.140~141.

서 다음 지적은 본 논문의 논의 진행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바르트는 [...] 기표를 괄호 안에 놓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바르트는 기호론자로서의 바르트이지, [...] 에세이스트로서의 바르트가 아니다), 작품의 구상적인 차원에 직접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예컨대 모티브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흥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형태의 (기호학적인) 삶’의 연구에 천착하면서 표현 구조의 생성과정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불만족스러운 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²²⁾

플로슈는 기호, 의사전달, 함축의미의 개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수사학적 기호학이 이론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설명한다.²³⁾ 기호는 자연언어에 기반을 두고 연구를 전개했기 때문에 조형적 대상을 다룰 수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을 언어로 환원해야 한다는 강박은 모든 대상을 언어행위의 발화체와 같이 분절하려는 시도로 발전시켰지만, 시각적이며 조형적인 이미지, 즉 언어적 발화체 이외의 것을 다루는 데는 전혀 유효하지 않았다. 수사학적 기호학은 의사전달을 발신자의 의도와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의미’ 자체에 관한 연구보다는 심리학적 차원으로 정도될 수밖에 없었다. 기호학은 의미의 과학이지, 대상 뒤편에 가려진 의도를 밝히는 학문이 아니다. 이 사실은 소쉬르가 계속해서 경계해 왔던 부분이다. 함축의미는 신화나 언어기호의 기의와는 다른 의미 작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호학에 접근하는 학문마다, 기호학의 기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의미의 개념에만 천착하는 일이 발생한다. 언어학자는 언어기호의 기의, 사회학자들은 신화의 기의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 이들에게 의미는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수사학이 함축의미의 단계에서 담화와 작품을 다룬다는 말을 계기로

22) *Ibid.*, p.14.

23) *Ibid.*, p.143.

바르트의 이론들을 통해 위의 언급들을 다시 살펴보자. 이러한 재구성은 수사학이 수사학적 기호학으로 활용되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쓰기의 새로운 기호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유효한 개념적 밑바탕을 설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바르트는 전기와 후기에 분명히 단절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²⁴⁾ 이 단절은 전기에 자신이 내놓았던 이론들의 전면적 수정으로 생긴 일이라기보다. 바르트의 기호학적 사고들을 재구성하면서 발생한 변화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신화, 언어기호, 함축의미 등은 모두 전기 이론부터 있었던 개념이다. 그런데, 바르트가 외시의미(dénotation)가 함축의미의 마지막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의 대립적인 관계가 허물어지게 된다. 바르트는 외시의미를 일종의 공유된 의미, 즉 사회적 신화로 규정하면서 생각을 전환한다. “외시의미는 의미들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니지만, 첫 번째인 척한다. 이러한 환상 속에서 그것은 결국 함축의미들의 마지막 의미(독서를 성립시키고 동시에 마감하게 하는 것 같은 의미)에 불과하며, 텍스트가 언어행위의 본성으로 자연으로서의 언어행위로 되돌아가는 척하게 하는 고차원적 신화이다.”²⁵⁾ 즉, 모든 의미는 주체가 투영하는 함축의미이며, 어떤 지점에서 포착되는지에 달려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대상을 정의하기 위한 질문 “이것은 무엇인가? Qu’est-ce que c’est?”가 주체의 선택 혹은 포착을 뜻하는 질문으로 전환된다: “나에게 이것은 무엇인가? Qu’est-ce que c’est pour moi?”²⁶⁾ 이때부터 모든 의미작용은 주체가 어떤 지점에서 함축의미를 포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순수하게 자신의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볼 때, 함축의미를 투영하

24) 바르트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호학은 내가 이 기호학 역사의 초기에 보고, 상상하고, 실천했던 기호학이 더는 아니다. 문학 기호학과 관련해서, 단절은 매우 현저하고, 그 단절은 「이야기의 구조 분석 서설 (Introduction à l’analyse structurale)」과 『S/Z』 사이에 정확히 위치한다.” R. Barthes, *Le grain de la voix*, Paris, Editions du Seuil, 1981, pp.122~123.

25) R. Barthes, *op.cit.*, 1970, p.16.

26) R. Barthes, *Le bruissement de la langue: essais critiques IV*, Paris, Editions du Seuil, 1984, p.280.

는 것이고, 랑그의 차원에서 포착할 때 외시의미를 차원에서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의미로 대상을 파악할 때, 이를 신화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결국 외시의미와 신화도 함축의미에 포함된다.

이 함축의미의 개념에 따르면 위에서 제기된 바르트 전기 이론에 대한 논의들은 수정할 수 있다. 우선 언어기호의 기의가 되돌아가야 할 자연, 자명함이 아니라 강력한 신화의 한 유형이 됨으로써, 언어 환원하지 않아도 되는, 기표와 기의의 순수한 결합인 수사학적 단계를 직접 상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된다. 또한, 기표와 기의의 결합, 즉 함축의미 기제가 기호학 연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표 뒤에 있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심리학과 같은 인접 학문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세미오시스로서의 함축의미가 그 자체로 연구 대상이 됨으로써 의미작용의 다양한 층위와 양상을 하나의 기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기호의 자의성이 일반기호학의 보편적 원리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²⁷⁾ 따라서 함축의미의 외연을 정의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호학이 함축의미의 기제를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만든 모든 지적 대상에 대한 일반적 분석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²⁸⁾이다.

2. 이미지의 수사학

바르트는 「이미지의 수사학」에서 고전적인 수사학과는 다른 함축의미 자체를 수사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이

27) 의미작용에서 주체의 선택 문제는 이미 귀스타브 기욤Guillaume의 이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욤 이론에서 발화행위의 결과인 발화체에 드러나는 형태는 인간의 사고작용이 전제로 하는 시간인 작용시간temps opératif에서의 순간적 포착une saisie momentanée의 결과이다. 같은 관사article라도 어느 지점에서 포착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고, 관사가 한정하는 명사 역시 의미에 영향을 받는다. G. Guillaume, *Langage et science du langage*, Paris, Nizet, 1964, p.145.

28) R. Barthes, “Présentation”, *Communications* n°4, 1964, p.3.

미지의 의미 생산 기제를 기호학적 차원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바르트가 이 논문에서 기호학 대신 ‘수사학’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이미지의 의미작용을 특정한 규칙들을 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고전 수사학의 방법이었고, 이 논문에서 수사학은 언어기호, 신화의 의미작용, 함축의미가 각각 광고 이미지에서 하는 작용을 종합하는 데 있다. 리쾨르의 다음 수사학에 대한 재정의는 수사학이 의미작용의 기제를 말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준다.

고전 수사학은 이 의미의 생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은유를 대체물로 다루는 이론과 달리, 은유를 긴장으로 다루는 이론에서는 문장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의미작용이 발생한다. 이런 뜻에서 은유는 즉각적인 창조 행위이자 의미론적 혁신으로서, 이미 구축된 언어에서는 아무런 지위도 가지지 못하며 다만 특별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어떤 술어의 도움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은유는 유사성의 원리에 기반한 단순한 연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수께끼의 해결과 유사한 것이다.²⁹⁾

바르트는 수사학을 유사성에 바탕을 둔 유추의 작업이 아닌, 대상에 관한 기호학적 인식 과정의 기본 기제로 파악한다. 그 의미 발생의 다양한 방식과 그것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이미지의 수사학」이었다. 바르트는 이미지가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 메시지를 언어 메시지 message linguistique, 코드화된 도상적 메시지 message iconique codé, 코드화되지 않은 도상적 메시지 message iconique non-codé로 분류한다. 비선형적인 대상에 대한 의미작용은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세 가지 메시지는 각각 상징적 메시지, 문화적 메시지, 함축의미가 부여된, 즉 공시된 connoté 메시지로 구분된다.³⁰⁾ 이를 통해 알 수

29) P.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Forth Worth,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76, p.52.

있는 것은 『신화론 *Mythologies*』에서 의미작용 구분이 이미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부분은 이미지에겐 신화와 함축의미의 단계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시 바르트가 규정한 새로운 수사학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텍스트와 글쓰기의 이름으로 새로운 언어행위를 실천하는 것, 즉, 의미작용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광고라는 비선형적인 이미지에 부여되는 의미작용이 수사학이라는 것을 위에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수사학은 ‘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호화될 수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다. 이때의 수사학은 바르트가 규정한 고전 수사학과 같이 규칙의 총체, 혹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자질들의 총체에 얽매이지 않는다. 즉, 수사학은 장식적인 표현을 통제하고, 기표의 모든 사용을 체계화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수사학은 의미작용이라는 기제로 남는다. 고전 수사학의 여러 규칙은 이 기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일부분 짐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바르트는 언어 메시지보다 이미지 메시지가 뒤에 온다고 하면서, 광고 내의 메시지들의 층위를 구분하기 시작한다. 이미지는 기호가 될 때는 어휘로 환원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즉, 의미작용이 일어날 때, 이미지는 기표가 대상 자체이기 때문에, 사물인 기의와 기표는 자의적일 수 없다. 바르트는 이미지에 대한 의미작용이 언어기호에서와 마찬가지로

-
- 30) 이미지의 수사학에 관한 논의에 앞서 언어 메시지의 역할을 보자. 실제로 이 바르트의 논문은 이미지에 관한 연구이다. 언어 메시지는 의사를 직접 전달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함께 등장했을 때, 이미지의 다의성을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이미지는 다의적이며, 기표들 아래에 숨어서 그 독자가 어떤 것은 선택하고 다른 것들은 무시하는 기표들의 ‘유동적인 연쇄’를 내포하고 있다. 다의성은 의미에 관한 의문을 자아낸다.” 이때 유동적인 연쇄는 이미지에 부여되는 맥락 없는 주체의 의미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언어학적 메시지는 이 의미작용을 한정하는 사회적 장치의 하나로 정의된다. “모든 사회 속에서는 확실치 않은 기호들에 대한 공포를 근절하기 위해, 기의의 유동적인 연쇄를 **고정하도록** 정해진 다양한 기술(技術)이 발전한다. 언어 메시지는 이 기술 중 하나이다.” R. Barthes, “Rhétorique de l’image”, *Communications*, n°4, 1964, pp.43~44. 언어 메시지가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의의를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미지와 혼재하는 언어 메시지를 통해, 이 메시지가 갖는 새로운 역할을 상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미지의 측면에서 보면, 언어적 메시지의 역할은 이미지의 다의성을 재확인하는 데 이바지한다.

사물인 기의에 의해 대상의 의미가 가득 채워지거나 고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민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제시한 세 메시지 중, 언어적 메시지를 제외한 나머지 메시지들은 독자의 해석 차원에서 분명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이미지의 관객은 지각적 메시지와 문화적 메시지 **동시에** 받아들이기 때문이다.”³¹⁾ 광고 이미지는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강하게 소비자들을 자극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상품을 구매하라’고 말하는 광고의 메시지는 분석적 관점에서 여러 의미작용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 바르트는 이 수사학을 통해서 이 얹혀 있는 의미작용들을 분류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밝혀내려고 했다. 바르트는 광고 전체를 바탕으로 그 구조 이해를 목표로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분석을 통한 이해가 보편성을 가져 다른 광고 혹은 작품에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구조적 기술(記述)은 각 메시지의 설명을 나열하는 ‘순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분석은 이 메시지들의 관계를 통해, 그 전체, 즉 한 광고 이미지가 의도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세 메시지의 관계를 정의한다.

우리는 문화적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의 위치를 바꿔, 메시지들의 질서를 약간 수정할 것이다. 두 도상적 메시지 중, 첫째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 두 번째 메시지 위에 각인되어 있다. 문자 메시지는 ‘상징적’ 메시지의 중심축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것의 기표들을 만들기 위해 다른 체계의 기호들을 책임지는 체계가 함축의미의 체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자적 이미지는 외시된 것 *dénotée*이며, 상징적 이미지는 공시된 것 *connotée*이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²⁾

이렇게 각 메시지가 맺는 관계들은 극히 개인적인 것일지라도 주체가

31) *Ibid.*, p.42.

32) *Ibid.*, p.43.

의미작용을 통해 얻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이 지점에서 수사학은 개입한다. 여기서 이미지의 수사학은 전적으로 주체가 얻는 이미지로부터 의미를 얻는 규칙들이나 더 잘 의미가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이다. 수사학은 이미지 내 메시지들이 맺는 관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체의 의미작용 기제를 가리킨다. 상기할 것은, 이 메시지는 서로 다른 기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표에 의미작용이 부여되면 각 메시지로 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미작용으로 얻는 의미는 개인적이며, 개인이 의미를 어느 지점에서 포착했느냐에 따라 얻는 의미는 달라진다. 그것을 구분하여 놓은 것이 위 세 가지 메시지이다. 이 세 메시지의 “체계를 독창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동일한 이미지에 대한 독해의 숫자가 개인마다 다양하다는 것이다. 판자니Panzani 광고에서 우리는 함축의미의 네 가지 기호를 찾아냈었는데 아마도 다른 것들이 더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그물 망태기는 놀라운 어획량, 풍부함 등을 의미할 수 있다).”³³⁾

개인의 함축의미는 의미 다양화에 근본 원인이다. 바르트의 다음과 같은 함축의미와 텍스트에 대한 의미 규정은 주목할 만하다. “이미지의 언어, 그것은 단지 내보내진 말 전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받아들여진 말 전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랑그는 의미의 ‘의외성들’을 포함해야 한다.”³⁴⁾ 여기서 특히 텍스트로 통칭할 수 있는 이미지, 영상 등은 잠재적으로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독자가 수용하는 메시지는 선택적이며, 문화와 규약으로 정해진 맥락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작가의 의도는 내보내진 말 전체 중 한 경우의 수에 해당할 뿐이다. 독자가 이 의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독자의 의도는 아니다. 수사학은 텍스트의 의도와 독자의 읽기가 뒤엎히게 되는 기제 즉 의미작용의 기제를 말하는 것이다. 고전 수사학이 중시했던 ‘잘 말하

33) *Ibid.*, p.48.

34) *Ibid.*, p.48

는 기술'은 광고의 성공과 직결된다. 그렇다면, 다시 고전 수사학이 제시했던 배열의 규칙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언어기호의 기표를 제외하고, 함축의미가 결합하는 기표는 선택된 실질이다. 바르트는 이 기표를 함축의미소connotateur로 명명하며, 이 함축의미소들 전체가 수사학이라고 규정한다.³⁵⁾ 이 기표들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학 역시 실질의 형태에 따라 전개된다. 이러한 기표와 기의의 결합과정은 언어기호와와는 반대의 양상이다. 이때 기표의 포착은 음운 자질과 같이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물리적 제한을 따른다. 다시 말해, 인간은 보는 대상에 직접 함축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구성된 기호들은 특수한 것이 된다. 이미지나 몸짓과 같은 비선형적 대상들이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형식적 관계로 환원되면 일반적인 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요소들의 형식적 관계와 그 관계의 보편적 규칙들을 한정하려던 것이 고전 수사학이다. 고전 수사학은 요소들의 관계가 같은 비선형적 대상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목록화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수의 함축의미소로 인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수사학이 비선형적 대상에 적용되는 방식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 이미지 안에 다른 여러 이미지가 있을 때, 함축의미소들은 개별 의미작용의 기표이기 때문에 불연속적discontinus 나아가 비고정적erratiques 이기까지 한 자질들이다. 바르트는 “함축의미소는 모든 어휘를 채우지 않으며, 그것의 독해는 그 어휘를 고갈시키지 않는다. [...] 어휘의 모든 요소들은 함축의미소들로 변형되지 않으며, 담론 속에는 항상 어떤 외시의 의미가 남는데, 그 외시의미 없이는 담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³⁶⁾ 이 시기의 바르트는 외시의미를 기본적인 의미로 보았지만, 본 논문의 입장에서 외시의미가 기본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함축의미의 하나로 볼 것

35) *Ibid.*, p.49.

36) *Ibid.*, p.50.

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위 인용문의 뜻을 살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어떠한 함축의미라는 의미작용이 대상의 기의를 완벽히 대신할 수는 없다. 주체의 개인적인 의미작용인 함축의미는 계속 새로운 기의의 결합 즉, 은유를 만들어낸다. 오히려 기의 부분은 계속해서 비워진다.

한 이미지는 여러 비고정적 부분들 *blocs erratiques*로 나뉘어 있다. 판자나 광고도 여러 대상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이 부분들은 부분들 자체의 통사적 결합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외시의미의 통사적 결합에 묶여 있다. 각 부분들은 물론 함축의미소들은 일관된 광고의 의미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시의미들의 통사적 결합이 함축의미가 이미지 전체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한다. 바르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불연속적인 함축의미소들은 외시의미의 통사적 결합을 통해서 연결되고, 현동화되고 ‘말해진다’.”³⁷⁾ 이를 통해 우리는 의미작용들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관계가 광고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만든다.

함축의미의 기표 전체가 수사학이라는 말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이미지는 거의 온전한 실질의 형상이 기표가 된다. 하지만 이 실질 자체가 기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실질에 부여되는 의미작용, 즉 세미오시스가 이 실질을 기표로 만든다. 전체로서의 의미에는 문화적 차원의 의미작용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연으로서의 의미작용이 공존하지만, 분명히 분리될 수 있다. 이 분리 포착될 수 있는 의미작용들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은 이른바 작품이고 텍스트이다. 이 결합을 통해, 외시의미는 함축의미를 자연화 *naturaliser*한다. 따라서 구성 요소들의 통사적 관계가 아니라 대상 전체의 함축의미와 외시의미 사이의 관계, 즉 의미작용들의 관계를 규칙화하는 것이 바로 수사학이다. 바르트는 작품과 텍스트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37) *Ibid.*, p.50.

대중 매체의 작품들은 자연의 호소력, 즉 이야기, 허구의 세계, 통사적 결합의 호소력과, 사람들이 자신들이 쓰는 말의 보호 아래 <만들어낸> 몇몇 불연속적인 상징 안에 숨은 문화의 명료함을, 다양한 변증법을 통해, 그리고 다양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변증법을 통해 결합한다.³⁸⁾

텍스트 안에서 외시의미와 신화는 서로 얹히면서 다양한 효과를 낸다. 이 두 의미는 어떤 관점에서는 함축의미를 약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후기 바르트의 이론에서 함축의미의 스펙트럼 안에 포괄된 외시의미와 신화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외시의미와 신화는 텍스트의 의미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한정이 철저히 적용될 수 없다. 주체가 얻는 모든 텍스트의 의미에는 자신만의 의미인 함축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텍스트 전체 의미는, 의미작용들의 결합이 아니라, 주체의 의미작용인 함축의미의 스펙트럼 중 어느 지점에서 텍스트가 포착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의미작용들의 조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포착의 지점이 이동하는 기제를 설명하는 것이 수사학이다. 미디어는 외시의미와 신화를 이용하여 텍스트와 작품을 되도록 자신이 의도하는 바대로 독자들에게 읽히려고 한다. 바르트가 활용한 광고는 그 의도가 극대화된 텍스트이다. 예술작품의 경우, 작가와 독자의 서로 만날 수 없는 함축의미들의 교차가 작품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작용의 비고정성을 규칙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고정적일 수밖에 없는 기제를 설명하는 것이 수사학의 임무이다.

IV. 결론

바르트는 논문 「옛날의 수사학」에서 고전 수사학과 대조적으로 새로운 수사학을 “텍스트와 글쓰기의 이름으로 새로운 언어행위의 실천을

38) *Ibid.*, p.51.

주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정의로부터, 본 논문은 바르트의 여러 저작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수사학’의 윤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우선 바르트의 의미작용과 새로운 수사학의 외연을 개념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드의 체계』를 일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수사학이 일반기호학의 기제, 즉 모든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부여와 해석의 기제를 바탕으로 이론적 영역을 구축했다는 점이었다. 수사학의 시스템 안에서 함축의미가 일어난다는 바르트의 언급은, 그가 내세운 수사학이 의미작용, 즉 해석과 읽기의 문제를 학문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플로슈의 이론과 바르트의 논문 「이미지의 수사학」을 살펴보면, 수사학과 대상의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했다. 새로운 수사학이 말과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같은 비선형적 대상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바르트의 이론에서 그러했듯이, 플로슈의 논의에서도, 고전 수사학이 잘 말하고 쓰는 언어행위의 규칙을 정하는 학문이었다면, 새로운 수사학은 대상의 실질과 관계없이 기표와 기의의 결합 기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된다. 특히 플로슈는 ‘수사학적 기호학’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수사학적 기호학은 광고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이 분야는 소비자를 더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의미작용의 규칙을 찾으려고 했다. 플로슈가 강조하는 것 역시 기호학의 역할이 의미작용의 기제를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이었으며, 플로슈는 이 기제를 통해 언어행위의 분석을 포함하여 조형적 대상을 분석하고자 했다. 플로슈의 이러한 연구 방향은 바르트의 수사학이 대상을 다루는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바르트가 제시한 전체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한 용어들 역시 그의 독특한 사고를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진 수사학이 그러하고, 텍스트, 신화, 함축의미, 외시의미 등도 정의를 하는 데 있어 여러 문헌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바르트의 기호학 연구 여정이

그만큼 다양한 학문과 관계를 맺고, 폭넓은 범위의 대상에 관심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텍스트에 대한 정의는 매체의 발달에 따라 그 정의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한 용어를 정의하거나 그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하나의 견해를 내는 것뿐이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일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정의들을 참고해서 한 용어의 정의를 위해 계속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바르트의 연구, 이론, 사고를 담은 글들이 소중한 것은 어떤 조합에도 새로운 영감을 제시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그의 전집이 다섯 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이라는 것과 함께, 그의 논의들이 당시만큼이나 지금에도 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바르트의 논의를 활용할 정도로 혁신적이고 현재적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말할 것은, 바르트의 ‘수사학’ 정의를 보면서, 다시 ‘글쓰기’의 개념이 중요하게 떠오른다. 바르트의 수사학이 한편으로 신화처럼 굳어버린 기존 글쓰기의 방식을 무너뜨리는 의미작용이며, 다른 한편으로, 기표, 즉 전체로서의 텍스트를 향한 주체의 의미작용 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글쓰기 개념에서 작가, 독자, 텍스트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한다. 따라서, 글쓰기의 논의에서 수사학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다루는 일도, 본 논문에 이은 주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어지는 연구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1994.
_____, 『미디어 신화』, 경문사, 1993.
김치수 외,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김현, 「[지식의 최전선] 설득의 학문, 수사학의 세계」, 조선일보, 2015년 8월 12일
자 인터넷판.(<https://url.kr/m4tquc>)
리처드 토이, 『수사학』, 노승영 역, 고유서가, 2015.
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Paris, Editions Gallimard,
1966.
G Guillaume., *Langage et science du langage*, Paris, Nizet, 1964.
J.-M Floch., *Petites Mythologies de l'oeil et de l'esprit: pour une sémiotique
plastique*, Paris, Editions Hadès, 1985.
P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Forth
Worth,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76.
R Barthes., “L’ancienne rhétorique: aide-mémoire”, *Communications* n°16, 1970,
pp.172~223.
R Barthes., “Recherches sur la rhétorique”, in *Roland Barthes: Œuvres complètes*
Tome II, Paris, Editions du Seuil, 2002.
R Barthes., “Présentation”, *Communications* n°4, 1964, pp.1~3.
R Barthes., “Rhétorique de l’image”, *Communications*, n°4, 1964, pp.40~51.
R Barthes., *Le bruissement de la langue: essais critiques* IV, Paris, Editions du
Seuil, 1984.
R Barthes., *Le grain de la voix*, Paris, Editions du Seuil, 1981.
R Barthes., *Le système de la Mode*, Paris, Editions du Seuil, 1967.
R Barthes., *S/Z*, Paris, Editions du Seuil, 1970.

A Study on the Rhetoric of Roland Barthes

Kim, Hui-Tea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s of rhetoric and semiology in Barthes's theory. For this study, we reviewed Roland Barthes' writings, *Le Système de la Mode*, 'L'ancienne rhétorique : aide-mémoire', 'Rhétorique de l'image', etc. What we are able to grasp through this review was that Barthes' 'new rhetoric' built a theoretical domain based on the mechanism of general semiotics, that is, the mechanism of signification that can be applied to all objects. Barthes' remarks that connotations occur within the system of rhetoric showed that his rhetoric puts the problem of signification, that is, interpretation and reading, at the center of the study. We introduced Jean-Marie Floch's theory and saw that the new rhetoric applies not only to speech and writing, but also to non-linear objects such as images. What Floch emphasized like Barthes was that the role of semiology was to elucidate the mechanism of signification, and Floch tried to analyze the formative object, including the analysis of linguistic behavior, through this mechanism. Floch's research direction was not different from the way Barthes' rhetoric dealt with objects. Not only the overall theory presented by Barthes, but also the terms he used contain his unique thinking. This is the case with rhetoric, which we are interested in this paper, and references to various writings are needed to define the concept of terms such as 'text', 'myth', 'connotation' and 'denotation'. The reason is that Barthes' research journey is related to so many different disciplines and shows interest in a wide range of subjects.

Keywords : Roland Barthes, Jean-Marie Floch, Rhetoric, 'L'ancienne rhétorique: aide-mémoire', signification, connotation

투고일: 2022. 08. 05./ 심사일: 2022. 08. 17./ 심사완료일: 2022. 08. 18.